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서커스 구경



내가 십대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사이에는 한 가족만이 남았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열두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여덟 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들썩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 날밤 구경하게 될 어릿광대랑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곡예들에 대해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런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보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역시 훌륭한 여성이요.'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여덟 장과 어른표 두 장을 주시요."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라고 했소?"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순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 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혹스런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 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달러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요."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곧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 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1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3월 24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어떤 구출작전

1953년 11월 13일 새벽3시, 코펜하겐의 소방단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야간근무자인 에릭이 수화기를 들자 '살려달라'는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여인은 수화기를 든 채 정신을 잃었다. 주수도 전화번호도 채 물어보지 못한 에릭은 여인의 불규칙한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고심했다. 에릭은 즉시 소방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여인을 찾는 방법 하나를 내놓았다.

"이 큰 도시에 그 여인의 집을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 말대로 했다가는 코펜하겐 전 시민들이 전쟁이 난 줄 알고 놀랄꺼야."

그러나 에릭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시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믿었다. 마침내 서장은 에릭이 내놓은 방법에 동의하고 즉각 코펜하겐 시내 전역에 스무대의 소방차를 파견하고 동시에 싸이렌을 울리도록 하였다. 에릭은 소장이 소방대를 지휘하는 동안 전화기를 들었다. 여인은 아직 살아 있었다. 잠시 후 전화기 저편에서 싸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서장은 무전으로 1호차, 2호차 등 각 소방차의 순서대로 싸이렌을 끄도록 하였다. 서장의 지시가 12호차까지 이어졌을 때 에릭의 전화기에서 흐르던 싸이렌 소리가 멈췄다. 여인의 집은 12호 소방차가 있는 부근이었다. 그러나 수백 개의 집에서 다시 여인의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서장은 에릭이 시키는 대로 12호차 소방대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에릭은 전화기에서 12호차 소방대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주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위독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 불을 꺼주십시오."

싸이렌 소리에 몹시 놀란 사람들은 소방대장의 말을 듣고 하나 둘 불을 끄기 시작했다. 이윽고 칠혹같은 어둠 속에서 불이 켜있는 한 집이 있었다. 여인의 집이었다. 에릭은 전화기에서 문을 부수는 소리를 들었다.

"여인을 찾았다. 의식은 없지만 맥박은 뛰고 있다. 그녀는 무사할 것 같다."

전 시민이 협조한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더 없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주 일 예 배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5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61(수난일)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14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재영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21:1-11(신 21)	인도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찬송 Hymn	211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a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3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안내
3일	이광희	최재학	권용일, 김중건.	사카시다, 최기향
10일	이규임	권용일	김성국, 박일영	이종길, 송정남
17일	이기중	김교섭	양경배, 윤행권	박병민, 이기중
24일	이재영	김경숙	이광희, 이재영	이재영, 김경숙
31일	이지영	김동숙	이종길, 이종운	정덕수, 김순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새벽기도: 6:00 |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교회소식

-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고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울러 이번 한주간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경건과 절제의 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고난주간 금식
*금식: 하루 한끼 금식-금식참가헌금 1일 \$1
금식헌금은 이삭줍기를 통해 '기아어린이 2명'(필리핀, 태국) 후원금으로 보내집니다. (이삭줍기"헌금통: 1가정에 1개씩, 안내석)
- "성금요 성찬예배"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
주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 부활주일: 다음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새벽 5:30,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52 Anzac Rd. Browns Bay
- 모임: 제2여성교회 월례회: 친교시간에 모임입니다.
- 도서실 운영: 제2남산교회에서 운영 관리: 박병민, 권용일 집사
*신앙, 교양서적, 동화책, 테잎(성가, 가곡등), VTR테잎등의 기증을 바랍니다.
- 교우소식
*김진근 성도, 호주에 계신 가족방문 후 귀국
*김반석 집사, 한국방문 후 귀국
-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서동완, 유순성도 ☎ 3/3 Ambrico Pl. New Lynn
*김경구, 강은미 집사 가정, 다투, 다린
☎442-1123 ☎ 21 Godwin Court, Unsworth Heights, ☎고추 투어스 309-4320



엄마가 딸에게

칭찬에 넉넉한 품뎀은 여자가 되어라.
남을 칭찬하는 너를
다른 사람도 칭찬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벨이 자주 울려도 짜증을 내지 말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일수도 있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